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가 담긴 USTR 연례보고서 발간
- ◆ 핵심 키워드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미중관계 조정'
- ◆ 미국의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의제와 미중 관계 변화 의지에 주목

I.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 USTR은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가 담긴 '2023 Trade Policy Agenda and 2022 Annual Report'를 공개(3.1)
 - '74년 무역법(163조)에 따라 매년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무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례보고서 주목
 - 바이든 통상정책 키워드로, 전년과 유사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등 제시
 - '21년부터 의제에 포함된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 목차에서 최상단으로 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제외됨.

<2023년 및 2022년 통상정책 의제 비교(목차 순)>

2023년	2022년
•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 미국 농업 지원·육성
• 미국 농업 지원·육성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코로나19 위기 극복
• 미중 무역 관계 조정	• 미중 무역 관계 조정
• 무역정책 신뢰 증진	•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 무역정책 신뢰 증진
• (제외) 코로나19 위기 극복	•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자료: USTR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Ⅱ. 보고서 주요 내용

□ 핵심 교역 파트너 및 다자기구 협력 강화

- '23년 최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주 파트너십 (Americas Partnership), 대만, 케냐와의 이니셔티브를 언급
 - WTO 등 다자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참여 연대 강화, 미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포럼(APEC)을 통해 우선순위 공고화 전망

□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추진

- 북미 3국 무역협정(USMCA)을 필두로 노동자 우선 무역 정책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 2022년 멕시코 소재 4곳의 사업장에 대해 USMCA 신속대응 메커니즘 발동

□ 탈탄소화 경제 달성을 위한 무역의 역할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친환경 목표를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무역 정책 중요성 언급
 - 유럽연합(EU)과의 지속가능한 철강 합의(GSSA) 강조, WTO 수산 보조금 협정, 양자·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탈탄소 노력 강화

□ 공급망 탄력성·회복력 강화

- 팬데믹과 러우사태로 나타난 공급망의 취약성 지적, 공급망 관련 행정명령 (E.O.14017)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망 시스템 유지 노력 강조

* 공급망 4대 품목: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명시

- 공급망 이슈는 IPEF와 APEP의 핵심 의제로 지목, 연내 지속 논의 전망

□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마-중 무역 관계 정립의 중요성 강조

-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국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all available tools)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 관계의 재조정(Re-Aligning)을 위한 우방 국가들과 적극 협력 구상 시사
 - * 경제 3법(인프라법,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노력 강조

□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 비시장적인 관행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통해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노력

□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정책 추진

-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며,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평하고 탄력적인 경제 성장 실현 노력

□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긴밀한 동맹국으로 평가

- 무역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
 - '21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KORUS Joint Committee) 소집, '22년 4월 노동 위원회(Labor Affairs Council) 등 공동 노력을 명시하고,
 - 향후 공급망 문제, 지속가능한 무역, 신형 기술,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 해결을 위한 협력 기대

<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22년 한미 양국 간 회의 주요 논의 안건 목록 >

- (1) 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수출, (2) 한국의 유전자 변형 제품 수입허가 절차, (3) 한국 살충제 관련 리스트 제도, (4)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쿼터 관리, (5) 자동차 관련 규제, (6) 한국의 법률 서비스 개방 관련, (7) 금융 서비스업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의무, (8) 온라인 콘텐츠 시장 규정, (9)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조달 등

Ⅲ.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미국의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 의제와 미중 관계 변화 의지에 주목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일반인들을 무역 정책 중심에 두고 탄력성, 지속 가능성, 포용적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을 ‘선의의 힘’ (force for good)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
 - WTA 세미나에서는 올해 주요 무역 통상 이슈로 미중관계, 신규 무역협정 추진, 노동자 우선 무역정책, 탈탄소 가속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선정했으며, 무역확대법 232조, 무역법 201조, 301조 등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
 - 블룸버그 통신은 (1) 301조 대중관세 필요성 검토, (2) IRA 보조금 우려 해결을 위한 미국-EU TF 운영, (3) USMCA 무역협정 분쟁 이슈 절차 착수, (4) IPEF 협상, (5) 대만 이니셔티브 진전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하원 무역 소위원회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위원장은 미중 관계 조정을 위해서 “강제력 있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리적인 무역협정 협상이 중요하다”고 성명 발표
 - 인사이트트레이드는 '23년 통상정책 의제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 수단(Tool)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지만,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

* 자료 : 美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보유자료 종합